

이젠 우리도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때

● 우리나라 보건교육의 문제점

우리나라 보건교육 사업이 예산의 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선진제국과 같이 정부의 중앙부서에 보건교육전담과를 신설한 정책결정자의 결단은 높이 평가할 만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고 사업을 효과있게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제반여건, 즉 지방정부와 일선 조직에 전담부서의 부재와 담당전문인력의 부족 및 예산의 절대적인 부족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발전이 지지부진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건교육 사업 발전의 저해요인을 몇가지로 분석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정책결정자의 보건교육에 대한 이해부족입니다. 보건교육사업은 새마을사업

의 지봉개량 또는 소득증대 사업과 같이 눈에 보이게 업적이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정책결정자들의 보건교육에 대한 이해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둘째, 지방보건교육행정체계의 미흡입니다. 중앙부서에는 보건교육과가 있어서 보건교육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지방조직은 시·도 단위와 지방시군 단위에도 보건교육을 전담하는 통일된 부서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셋째, 보건교육 전문가의 부족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태까지 보건교육은 보건사업분야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그늘진 분야였으며 투자를 소홀히 했던 분야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건교육 영역에 깊이 관여하고자 하는 전문인력이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보건교육관련 기초조사 자료의 부족입니다. 모든 보건사업중에서 기초연구 자료가 가장 빈약한 분야의 하나는 보건교육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건교육에 대한 정책이나 전략에 따른 기초 연구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섯째, 보건교육 및 홍보용 자료의 부족입니다. 모든 보건요원은 보건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보건요원은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활동을 해야겠는데 교육자료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섯째, 학교보건교육의 비활성화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재에 건강교육에 대한 내용의 불충분과 이를 학생들에게 학습시킬 교사의 부족입니다. 양호교사나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건강교육을 담당해야 하는데 양호교사가 학교마다 재직하고 있는것도 아니며 체육교사나 담임선생님이 얼마만한 시간을 건강교육에 할애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학교보건교육을 지도감독하거나 기획평가하는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학교보건교육의 발전이 더욱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지역사회주민들의 잘못된 보건의식의 고정화로 이를 올바르게 바꾸는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이고 민속적인 불건강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는데는 상당한 기간과 꾸준한 설득이 요구됩니다.

여덟째, 전문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

학원 과정에 보건교육전공이 있을 뿐 전문대학 일반대학 과정이나 기타 대학원과정이 없으며 국립보건원의 3주과정 이외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교육에 대한 과정을 이수시키는 곳은 없습니다.

아홉째, 보건의료기간과 관련인사들의 보건교육활동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민간의료기관 뿐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치료사업에만 열중하고 보건교육에 대한 사업에는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약의 사업이 있는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째, 대중매체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언론인이나 방송인은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들에게 제공할 보건교육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 「메스콤」의 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상과 같은 장애요인을 여러가지의 손쉬운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 나간다면 보건교육 발전의 장래도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주보 536호에서)

